

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차이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최 선 영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의 발달차와 어린 아동기에 두드러지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가지는 적응적인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차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아동 54명(평균 연령: 4세 3개월), 나이는 아동 47명(평균 연령: 7세 7개월)을 대상으로 특질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측정한다. 연구 2에서는 어린 아동의 두드러진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를 밝히고자 연구 1에 참여하였던 어린 아동 54명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린 아동의 인지·신체능력/또래·엄마수용에 대한 자가지각,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은 긍정적인 자가지각과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가 확인되었다.

주요어: 낙관성,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자가지각, 문제행동, 특질믿음

어린 아동은 어른과는 다르게 외부 세상을 지각한다. 자신이 원하지만 하면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속임수가 있는 마술도 현실처럼 믿는다. Rothbaum과 Weisz(1989)는 이러한 환상적인 믿음과 관련하여 학령전기

와 학령초기의 시기를 “외부의 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면에서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사고와 행동들이 영향을 준다고 믿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사고는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에서도

* 교신저자 : 곽금주, E-mail: kjkwak@snu.ac.kr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은 반에서 가장 키가 작았던 남자아이도 어른이 되면 마이클 조던처럼 키가 큰 농구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환상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단순히 어린 아이의 미숙함과 결핍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개인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믿음, 낙관성이라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과거 아동에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아동의 부정적인 결핍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앞서 말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사고 또한 어린 아동이 가지는 미숙한 인지 능력 혹은 심리적 결핍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부적응적 결핍에 주목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적 결핍보다는 아동의 유능성, 심리적 영역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oberts, Brown, Johnson, & Reinke, 2002). 즉, 최근 연구자들은 도전적인 외부환경에서도 보호 요인이 되는 강점과 긍정적 자산(positive assets)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이 보이는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측정하고, 이를 심리적 결핍과 미숙함이 아닌 긍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함을 알아보고자 한다.

낙관성의 정의

낙관성의 정의에는 ‘기질적 낙관성’과 ‘낙관적 설명 양식’이 포함된다. 기질적 낙관성이란 미래 사건에 대하여 나쁜 일을 기대하기 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인 기대감을 말한다(Scheier & Carver, 1985). 낙관적 설명 양식이란 개인이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Seligman, 1991). 즉, 연

구자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하여 낙관적인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외부적, 일시적, 특정적인 것이라고 귀인하는 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내부적, 안정적, 전체적인 것으로 귀인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기질적 낙관성은 미래의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를 믿는 정도를 측정한 것이고, 낙관적 설명양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과거 사건에 대한 귀인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두 개념 모두 ‘미래 사건에 대한 기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Peterson & Seligman, 1984; Seligman, 1991; 유은상, 2004에서 재인용).

낙관성의 발달

이러한 낙관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이다. Schulman, Keith와 Seligman(1991)은 이란성 쌍생아들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일란성 쌍생아들은 .48의 내적 상관을 발견하였다. 둘째,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의 유형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다. 성인이 아동에게 주는 실패의 원인에 대한 피드백에서 지능과 같이 보다 안정적인 특성에 관한 피드백이 주어졌을 경우, 아동은 좀 더 자신의 실패가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weck & Licht, 1980). 셋째, 초기 생애에서 가족의 이혼이나 질병과 같은 손실 경험, 학대와 같은 트라우마 경험이 영향을 준다고 본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혹은 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더 비관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86; Stern, 1990). 마지막으로, 엄마

의 낙관적 설명 양식과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낙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아동이 엄마가 보이는 낙관적인 설명양식을 모방, 학습한다고 보며, 엄마가 제공하는 적절한 따뜻함과 통제를 지닌 양육환경이 아동의 안전감을 형성하고 이것이 낙관성의 발달로 이어진다고 본다(Hasan & Power, 2002; Hjelle, Busch, & Warren, 1996).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생애 초기 혹은 아동기에 겪게 되는 경험들이 이후 낙관성의 발달에 영향을 줄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라 할 수 있다. 즉, 낙관성의 발달에 있어서 아동기의 초기 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의 발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어린 아동에게서 두드러지는 낙관성의 발달차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낙관성의 발달차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낙관성은 아동기에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아동기의 두드러진 낙관성은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Bjorklund & Green, 1992; Cosmides & Tooby, 1989).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 아동은 이러한 기술을 아주 느리게 습득하거나 대부분 기술 습득의 실패를 경험한다. 이 때, 어린 아동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즉 낙관성은 수많은 시행착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추구를 단념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Robins & Beer, 2001). 또한, 아동기의 높은 낙관성은 현실성(reality)과 바람(wish)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변모형 메커니즘(covariation principle)에 근거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미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어린 아동은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긍정 편향(positive bias)”을 보이는데, 이러한 편향은 초등학교시기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eider, 1991; Stipek, 1984). 여기서의 긍정 편향은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기대감’이라는 점에서 낙관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Stipek(1984)은 이에 대하여 아동이 아직 현실성과 바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어린 아동의 긍정 편향은 자신의 실제 수행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바람 사고(wishful thinking)”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아동은 바람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람의 효과에 대한 믿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소함을 발견하였다(Woolley, Phelps, Davis, & Mandell, 1999). 또한, Schuster, Ruble와 Weinert(1998)는 어린 아동의 자기 평가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편향은 어린 아동이 공변 모형 메커니즘에 근거한 해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공변 모형에 따르면 실패(예를 들어, 수정이는 수학시험을 망쳤다)에 대한 원인 정보로서 실패원인이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개인특성(수정이의 낮은 수학실력)이나 외부대상특성(어려운 수학시험)에 있는 것이라면 이후 미래에 있을 그 과제에서는 실패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원인정보로서 좀 더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는 외부환경 원인 정보(시험 당일 수정이의 감기몸살)가 제공된다면 미래 과제에 대해서 실패를 기대하기 보다는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유치원 아동, 초등학교 2학년 아동,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실패 시나리오에 대한 각기 다른 원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성공에 대한 기대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좀 더 공변 의존적인 해석을 보였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패에 대한 원인으로 가변적인 원인이 아닌 안정적인 원인인 개인 특성과 외부대상 특성 귀인 정보가 제시될 때만 일어난 것을 밝혔다. 반면, 나이가 어린 참가자는 실패 귀인 정보에 있어서 개인, 외부 대상, 환경 정보가 가지는 안정성과 가변성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지 않고 낙관적인 긍정적 편향을 보였다. 이렇게 어린 아동의 두드러진 낙관성, 혹은 낙관적인 긍정 편향은 진화론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어린 아동의 미숙한 인지 처리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 아동의 편향된 믿음이 아동의 공변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지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편향”이라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어린 아동이 미래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편향된 기대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지금까지 어린 아동은 자기 자신 혹은 미래 과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편향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그 믿음의 방향성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점에서는 낙관성과 개념적인 공통성을 가지지만, 특정 사건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전반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기

대 즉, 낙관성과는 개념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의 낙관성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낙관성과 비관성이 초기 생애에서 발달된다고 가정되나 이러한 기대(expectation)가 아동기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Kliwer & Lewis, 1995).

다음은 어린 아동이 아닌 자기보고가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의 연구들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할 최근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어린 아동이 아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낙관성의 효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기보고가 가능한 좀 더 나이가 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아동의 낙관적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Stipek, Lamb과 Zigler(1981)은 ‘Optimism-Pessimism Test Instrument: OPTI’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전반적 기대를 측정하였다. 이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교생활 태도, 자기개념(self-concept),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낙관적 기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Ey 등 (2005)이 Life Orientation Test-Revised(LOT-R; Scheier, Carver, & Bridges, 1994)에 근거하여 16문항의 ‘Youth Life Orientation Test(YLOT)’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YLOT에 의한 낙관성 측정에서, 낙관성은 3개월 후 더 낮은 우울증상, 더 낮은 문제 행동을 예측하였고 비관성은 더 높은 불안 증상과 사회적, 학업 부족을 예측함을 밝히면서 이 측정도구

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보고 식의 질문지는 미숙한 언어 발달을 보이는 어린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비록 자기 보고 형식의 질문지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 어린 아동(3세~9세)의 낙관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강점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로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에 대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의 주관적인 관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Park & Peterson, 2006).

하지만 최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이야기와 그림 자극으로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Lockhart, Chang, & Story, 2002). 이러한 낙관적 믿음에 관한 연구는 특질 변화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 체계는 개인이 사건을 해석하고 반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중 특질에 대한 믿음은 개인이 부정적 사건에 대해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Dweck, Hong, & Chiu, 1993). 특질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특질이 잘 변화되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가변적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실패에 직면했을 때 포기를 잘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 Lockhart 등(2002)은 나이가 어릴수록 특질이 더 가변적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믿는 것을 보여주었다. 5-6세의 어린 아동이 7-10세의 더 나이든 아동,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의 특질(traits)이 미래에는 좀 더 환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보였다. 즉, 어린 아동은 부정적인 특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 환상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절(control)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특

질 변화에 대한 믿음에서의 연령차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어린 아동의 현실과 바람사고의 구분의 실패에서 기인하였거나, 7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연구된 생물지식과 심리지식의 구분의 실패에서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박선미 등, 2005).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 아동에게서 두드러지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더 나이든 청소년, 성인보다 우울증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Lockhart et al., 2002). 하지만 이러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실제로 심리적인 적응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연령대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며 그것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질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은 낙관성과 어떠한 개념적 공통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Wengler와 Rosen(2000)가 이야기한 낙관성-비관성을 기대 가치 공식(expectancy-value formulation)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들은 기대 가치 모델에서, 낙관성-비관성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미래 사건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subjective probabilities)’와 ‘그 사건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가치 평가(values of events)’로 구성된다고 제안하였다. 미래 사건에 대한 주관적으로 기대된 가치(subjective expected value)는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 평가’와 사건 결과의 방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가치 평가’의 곱의 합산이라고 보았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주관적 평가 경향을 보이고,

그 사건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똥똥했던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게 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어린 아동은 그 소년이 원한다면 아주 멋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지만 더 나이트 아동 혹은 성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험령한 티셔츠를 입은 똥똥한 아저씨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 이는 어린 아동은 과거의 특질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건(멋진 모델이 되는 것)이 일어날 확률을 더 높게 평가하고, 그 방향이 좀 더 긍정적일거라는 가치 판단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 아동의 특질변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은 낙관성과 개념적 공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정한다. 첫째, 직접적인 경로로서 ‘긍정적인 주의 편향’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낙관적인 개인은 긍정적으로 잘 조화된 자극을 더 선호하는 잠재적인 주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낙관성이 생활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이끌고 이것이 심리적 적응을 이끈다고 본다. 둘째, 간접적인 경로로서, 능동적인 자기조절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낙관적인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성공을 기대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중심적인 대처 메커니즘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Scheier & Carver, 1985; Scheier, Carver, & Bridges, 2001). 즉, 자기 자

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낙관주의자는 긍정적인 정서와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비관주의자는 부정적 정서와 소극적, 수동적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키는 것이다(박경자, 1997). 예를 들어, 비관적인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고(Fischer & Leitenberg, 1986), 자살시도와 우울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Kazdin, French, Unis, Esveldt-Dawson, & Sherick, 1983). 반면, 낙관성 훈련을 받은 집단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훈련 이후 2년 동안 우울이 증가될 위험이 적었으며(Jaycox, Reiovtich, Gillham, & Seligman, 1994), 위기 극복에 대해 희망적으로 지각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높은 수준의 자존감, 유능감을 보이고 낮은 우울 증상을 보였다(Snyder et al., 1997).

그리고 이러한 낙관성과 심리적 적응에서, 낙관성과 자기 개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제안되어왔다. 낙관성과 긍정적인 자기 개념 사이의 관계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 발견되는 낙관성의 증가가 이 시기 증가하는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지지되어 왔다(Harter, 1974; Harter and Zigler, 1974). 비관성은 아동들에게 있어서 어렵고,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무력감을 지각하는 아동들에게서 발견되었고, 낙관성은 내적 통제 소재를 보이는 아동들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Stipek et al., 1981). 즉, 어린 아동의 세계에 대한 낙관적 시각 혹은 비관적 시각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측면에 배여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약 어린 아동

이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인지적 미숙함으로 인한 결핍이라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되어 왔던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발달심리학의 연구들은 제안하기를,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더 좋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왔다(Steinberg, 2001). 즉, 아동기 효과적인 양육행동의 경험이 아동기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 낙관적 세계관의 성장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따뜻함과 적절한 통제력을 가진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능력과 학업수행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가져왔다(Darling & Steinberg, 1993; Parker & Gladstone, 1996). 한편,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적 부적응을 보였다(Glasgow, Dornbusch, Troyer, Steinberg, & Ritter, 1997; Weiss & Schwarz, 1996). 하지만 엄마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대화에서 부모의 관점에 좀 더 반응적인 청소년들이 몇 년 후 성인 초기에 더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보였으며(Arnold, Pratt & Hicks, 2004), 자신의 부모가 권위적일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McIntyre & Dusek, 1995). 실제로 Jackson, Pratt, Hunsberger과 Pancer(2005)의 연구에서 적절한 따뜻함과 통제를 지닌 권위적 양육행동과 대학생의 적응 사이에서 대학생의 낙관성 정도가 중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하나의 긍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한다면,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할 때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중재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에도 학령전기 아동의 낙관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는 낙관성이 아동기에 두드러지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단순히 바람사고 혹은 공변 원리에 대한 미숙한 이해와 같이 심리적 결핍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기 보고가 불가능한 어린 아동의 낙관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자기보고 형식이 아닌 만 5세 아동에게 실시가 가능하였던 이야기와 관련 그림자극을 이용한 낙관적 믿음 측정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Lockhart 등, 2002).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린 아동의 낙관성이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러한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생애 초기의 심리적 적응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연구 2에서는 만약 동일한 연령대 내에서 낙관적 믿음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면,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낙관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자기개념,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애 초기 경험하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 상황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발달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과거의 부정적인 특질이 미래에는 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보거나 과거의 긍정적인 특질이 미래에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믿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 어린 아동과 나이 든 아동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 집단과 나이 든 아동 집단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린 아동의 경우, 개인, 외부 대상, 환경 정보가 가지는 안정성과 가변성 특성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긍정적인 편향으로 이어진 선행연구(Schuster et al., 1998)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심리특질과 생물특질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 집단과 나이 든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대응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동 54명,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나이 든 아동 47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어린 아동집단의 평균 연령은 4세 3개월(4세 2개월~4세 4개월)이고, 나이 든 아동집단의 평균 연령은 7세 7개월(7세 1개월~8세 2개월)이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총 57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나 실험 실시 초기 단계에 참여한 아동 3명은 예비실험에 참여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측정도구 및 절차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아동에게 제시된 자극은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N. P.)’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P. P.)’의 두 가지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특질변화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서의 연령차를 알아보았던 선행연구(Lockhart et al., 2002)에서 사용된 자극을 수정한 것이다. 각각의 조건은 생물학적 특질 3개, 심리학적 특질 3개를 포함하여 각각 6개의 시나리오로 제시된다. 이러한 특질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특질 구별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결정 인자보다는 이러한 특질 발현에 영향을 준 원인에 대한 지각(perception)이다. 즉, 심리 특질은 변화하기 쉬운 특질로 지각되지만 생물 특질은 보다 안정되고 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각된 것이다(Lockhart et al., 2002).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의 경우, 주인공이 변화하길 원하는 부정적인 특질(생물 특질의 예: 손가락이 하나 없는 아이, 주근깨가 많은 아이, 눈이 나쁜 아이/ 심리특질의 예: 심술궂은 아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 지저분한 아이)을 보여주는 6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이 주인공이 5세, 10세에도 부정적인 특질을 유지함을 들려주고 난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의 경우, 주인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긍정적인 특질(생물특질의 예: 눈이 좋은 아이, 키가 큰 아이, 피부가 깨끗한 아이/ 심리특질의 예: 단

정하고 깨끗한 아이, 사교성이 좋은 아이, 용감한 아이)을 보여주는 6개의 짧은 이야기에서 5세, 10세에도 긍정적인 특질을 유지함을 들려주고 난 후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각각의 아동은 무작위 순서로 각 조건의 6개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질문을 받게 된다. 각 조건의 이야기 후 제시되는 질문에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외부의 조작이나 개입(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지 않았다)이 없었다는 조건이 붙게 된다. 각각의 이야기와 선택지에는 해당하는 그림이 함께 제시되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른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모습일지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일지를 선택하게 한 후, 그 정도를 동그라미 카드(● 과 ●)를 사용해서 선택하게 하였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답했을 경우 4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의 경우 3점, 조금 부정적인 모습의 경우 2점, 아주 부정적인 모습의 경우 1점으로 하였다. 이러한 코딩 방법은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N.P.)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P.P.)에서 모두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N.P. 조건의 생물특질인 ‘손가락이 하나 없는 아이’ 조건에서만 ‘손가락이

여전히 4개이다(부정)’, ‘다른 사람보다는 작지만 조그마한 손가락이 생겼다(중성)’, ‘손가락이 다른 사람과 같게 5개가 되었다(긍정)’과 같이 3점 척도로 코딩되었다.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부정적인 조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동의 낙관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뿐만 아니라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조건을 제시하고 그 점수를 합산한 것이다. 즉, 두 조건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 때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결과 및 논의

우선 아동의 특질에 대한 낙관적 믿음에 있어서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총 낙관적 믿음 점수에서 연령차이가 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어린 아동 집단이 나이 든 아동 집단보다 더 높은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99)=7.46, p<.01$. 또한 하위 조건인 총 N.P. 조건

표 1. 연령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평균

	어린 아동 (n=54) 평균(SD)	나이 든 아동 (n=47) 평균(SD)	F값
N.P. bio	8.41(2.47)	5.64(1.98)	37.86***
N.P. psy	8.57(2.99)	7.96(2.14)	1.38
total N.P.	16.98(5.24)	13.60(4.76)	14.40***
P.P. bio	10.17(2.48)	9.80(1.83)	.667
P.P. psy	10.28(2.38)	10.60(1.56)	.610
total P.P.	20.44(4.29)	20.40(2.74)	.003
total N.P. + P.P.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37.43(7.70)	34.00(4.09)	7.46**

*, $p < 0.05$ **, $p < 0.01$ ***, $p < 0.001$

(total N.P.), $F(1, 99)=14.40, p<.01$, 과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 조건 내 생물특질 조건(N.P. bio)에서, $F(1, 99)=37.86, p<.01$, 어린 아동 집단이 나이 든 아동 집단보다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았다.

즉, 어린 아동이 좀 더 나이 든 집단보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힘든 부정적인 특질(예를 들어, 손가락이 4개 밖에 없는 아이)도 어른이 되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어른이 되어서도 손가락이 5개로 변함)는 믿음을 보였다. 이는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좀 더 부정적 특질의 가변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P.P. 조건 만으로는 유의미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N.P. 조건과 P.P. 조건을 합산한 경우에는 더 어린 연령이 더 높은 낙관적 믿음을 보였다.

다음은 특질 조건에 따른 환상적 낙관적 믿음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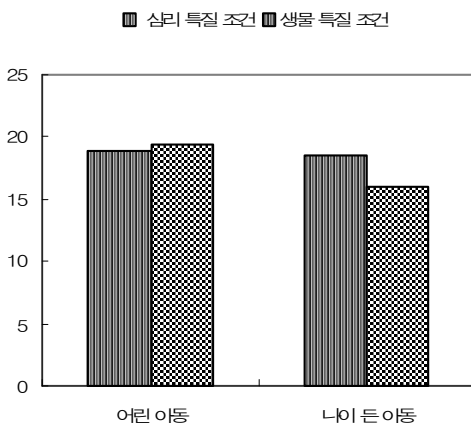


그림 1. 각 연령 집단에서의 특질 조건의 차이에 따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그 결과 어린 아동 집단에서는 특질 조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나이 든 아동 집단의 경우, 생물특질 조건($M = 6.20, SD = 2.11$)보다 심리특질 조건($M = 7.96, SD = 2.14$)에서 과거 특질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유지한다는 낙관적 믿음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t(46)=3.33, p<.01$. 즉, 나이 든 아동의 경우 특질의 변화 가능성에 있어서 심리특질과 생물특질 간의 차이를 인식함을 보여준다(그림 1).

이는 연령에 따라 특질 자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른 것이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이 든 아동은 생물특질이 심리특질보다 비교적 변화하기 어려운 고정 특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특질 조건보다 생물특질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믿음 정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2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특히 선행 연구에서 낙관성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던 자기개념, 문제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생애 초기 경험하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 상황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예측변인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 종속변인으로 문제행동으로 하여 분리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아동의 문제 행동

연구대상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연구 1에 참가하였던 어린 아동 54명과 이 아동의 어머니 54명이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및 절차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다.

아동의 신체/인지 능력 및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 지각

어린 아동의 자신의 인지, 신체 능력과 또래, 부모 수용에 대한 자기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가 개발한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 그림 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항은 어린 아동이 이해할 수 있게 문항과 관련된 그림과 함께 제시된다. 본 척도의 하위 영역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 또래 수용 정도, 신체적 능력, 어머니 수용 정도에 대한 자기 지각으로 각각 6문항 씩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점에서 4점으로 점수화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린 아동이 자기 능력, 수용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문항 간 내적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이다.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을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만을 사용하였다. 모두 1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점-2점의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높은 것이다. 본 평가는 부모 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내적 신뢰도가 Cronbach $\alpha = .50$ 수준보다 낮은 하위 영역들을 제외하고 위축(Cronbach $\alpha = .54$), 우울/불안(Cronbach $\alpha = .71$), 사회적 미성숙(Cronbach $\alpha = .56$), 주의집중문제(Cronbach $\alpha = .65$), 공격성 영역(Cronbach $\alpha = .80$)과 내재화 문제(Cronbach $\alpha = .73$), 외현화 문제(Cronbach $\alpha = .81$), 총 문제행동 영역(Cronbach $\alpha = .89$)을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엄마의 양육행동

엄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Rohner(1991)가 개발한 부모의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를 2004년 수정한 29문항의 Parent PARQ/CONTROL: Child(Short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Rohner(1991)에 의하면 수용-거부 척도는 크게 수용과 거부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온정/애정 차원(Cronbach $\alpha = .77$)은 수용을 나타내며, 공격성/적대감(Cronbach $\alpha = .70$), 무시/무관심(Cronbach $\alpha = .68$), 구별되지 않는 거부(Cronbach $\alpha = .70$)의 세 차원은 거부를 나타낸

다. 본 평가의 엄마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 및 논의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긍정적인 자기 지각과의 관계

어린 아동(만 4세)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정도와 자신의 인지와 신체능력, 사회적 수용 정도에 대한 자아 지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또래 수용 정도에 대한 지각은 낙관적 믿음에서 부정적 특질의 긍정적 변화(N.P) 조건 점수($r=.37, p<.05$), 이 조건의 하위요인인 생물특질 점수($r=.34, p<.05$), 심리특질 점수($r=.37, p<.05$), 그리고 총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r=.30, p<.05$)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의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또래 수용 정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어머니 수용 정도에 대한 지각은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에서 총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r=.29, p<.05$). 아동의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엄마 수용 정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기 지각, 또래수용과 엄마수용 정도에 대한 자기 지각 점수를 합산한 총 자기지각 점수는 총 N.P. 조건 점수($r=.32, p<.05$), 이 조건의 하위요인인 심리특질 점수($r=.31, p<.05$), 그리고 총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r=.31, p<.05$)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어린 아동이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낙관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선행연구에서 높은 낙관성이 더 긍정적인 자기 개념(self-concept)을 보인 연구 결과(Stipek et al., 1981), 9-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낙관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자존감(self-esteem)을 보인 연구 결과(Fischer & Leitenberg, 1986)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표 2.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긍정적인 자아지각의 상관관계

	N.P. bio	N.P. psy	total N.P.	P.P. bio	P.P. psy	total P.P.	total N.P. + P.P.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	.15	.19	.18	.07	.23	.17	.22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	.06	.15	.12	.07	.20	.15	.16
또래 수용에 대한 지각	.34*	.37*	.37*	.02	.12	.08	.30*
어머니 수용에 대한 지각	.23	.27	.26	.10	.25	.20	.29*
자기지각 총점	.26	.32*	.31*	.08	.26	.19	.31*

*, $p < 0.05$ **, $p < 0.01$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문제행동의 경우, 9개의 하위 요인 중에서 문항의 내적 신뢰도가 낮은 영역들을 제외한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와 총 문제행동 영역만을 분석하였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들과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 사이의 관계는 우울/불안 영역과 낙관적 믿음에서 긍정적 특질의 긍정성 유지 조건의 하위 요인인 심리특질 점수(P.P. psy)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r=-.30, p<.05$)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엄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엄마의 수용-거부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정/애정과 같은 수용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에서 보듯이, 엄마의 공격성/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불안($r=.30,$

$p<.05$), 공격성($r=.37, p<.05$), 외현화 문제($r=.38, p<.05$), 총 문제행동($r=.30, p<.05$)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무시/무관심을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우울/불안($r=.33, p<.05$), 내재화 문제($r=.33, p<.05$)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보이는 양육행동은 아동의 위축($r=.27, p<.05$), 우울/불안($r=.41, p<.05$), 주의집중 문제($r=.36, p<.05$), 공격성($r=.32, p<.05$), 내재화 문제($r=.38, p<.05$), 외현화 문제($r=.32, p<.05$), 총 문제행동($r=.37, p<.05$)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엄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인 거부적인 형태를 보일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결과와 유사하다(박철웅, 2002;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Pettit, Harrist, Bates, & Dodge, 1991).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에 따른 부정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부정적인 거부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높은 낙관적 믿음을 보이는 집단과 낮은 낙관적 믿음을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을 나눌 때는 총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total N.P.+P.P.)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인 집단을 고 낙관적 믿음 집단($n=18$)과 하위 25%인 집단을 저 낙관적 믿음 집단($n=13$)으로 하였다. 예측변인에는 엄마의 거부적 양육행동의 하위 변인인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종속변인에는

표 3. 엄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온정/ 애정	공격성/ 적대감	무시/ 무관심	구별되지 않는 거부
위축	-.24	.14	.25	.27*
우울/불안	-.24	.30*	.33*	.41*
사회적 미성숙	-.18	.03	.18	.23
주의집중문제	-.25	.18	.25	.36*
공격성	-.03	.37*	.22	.32*
내재화 문제	-.27	.25	.33*	.38*
외현화 문제	-.02	.38*	.18	.32*
총 문제행동	-.13	.30*	.25	.37*

*. $p < 0.05$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로 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적대감을 보이는 양육행동과 무시/무관심을 보이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정도(R^2)는 고 낙관적 믿음 집단보다는 저 낙관적 믿음집단에서 높았으나 유의미한 모델은 아니었다. 하지만 구별되지 않는 거부를 보이는 양육행동의 경우 고 낙관적 믿음 집단과 저 낙관적 믿음 집단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였다(표 4).

저 낙관적 믿음 집단에서 구별되지 않는 거부

를 보이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 36.3%, 우울/불안 = 32.1%, 내재화 문제 = 32.2%, 총 문제 행동 = 36.0%)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나, 고 낙관적 믿음 집단에서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위축 = 1.2%, 우울/불안 = 15.8%, 내재화 문제 = 11.7%, 총 문제 행동 = 1.4%)을 예측하는 정도가 감소하였고, 모델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낙관적 믿음 정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

표 4.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고/저 집단에서의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리된 회귀분석

예측변인	종속변인	아동의 낙관적 믿음 고·저 집단	β	R^2	F
	위축	고 집단(n=18)	-.11	.01	.19
		저 집단(n=13)	.60*	.36	6.27*
	우울/불안	고 집단(n=18)	.40	.16	3.00
		저 집단(n=13)	.57*	.32	5.21*
	사회적 미성숙	고 집단(n=18)	.01	.00	.00
		저 집단(n=13)	.49	.24	3.46
거부적 양육행동: 구별되지 않는 거부	주의집중문제	고 집단(n=18)	.16	.03	.41
		저 집단(n=13)	.53	.29	4.40
	공격성	고 집단(n=18)	.01	.00	.00
		저 집단(n=13)	.52	.27	4.04
	내재화 문제	고 집단(n=18)	.34	.12	2.11
		저 집단(n=13)	.57*	.32	5.23*
	외현화 문제	고 집단(n=18)	.00	.00	.00
		저 집단(n=13)	.54	.29	4.42
	총 문제행동	고 집단(n=18)	.12	.01	.23
		저 집단(n=13)	.60*	.36	6.20*

*. $p < 0.05$

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린 아동이 과거의 변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특질도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현재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인한 도전적 상황을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낙관성, 희망과 같은 강점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재적 역할을 하는 선행 연구 결과들(Valle, Huebner, & Suldo, 2006; Jackosn et al, 2005)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순간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높은 수준의 희망과 낙관적 믿음을 가진 아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Barnum, Snyder, Rapoff, Mani, & Thompson, 1998).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어린 아동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특질 변화에 대한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 있어서의 연령차를 알아본 결과,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보다 과거의 부정적인 특질이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조건의

긍정적 변화조건과 긍정적 조건의 긍정성 유지 조건을 합산한 총 낙관적 믿음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 아동이 나이 든 아동에 비해 어린 아동이 더 높은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 아동은 심리특질과 생물특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특질 이해의 상이한 수준이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연령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연구 2에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에서의 개인차에 중점을 두어, 어린 아동이 지닌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의 적응적 가치를 알아보고자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낙관적 믿음이 높을수록 또래와 엄마 수용을 포함한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높은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는데, 이 때 아동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적응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낮은 집단에서는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증가하였으나, 아동의 낙관적 믿음이 높은 경우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한다고 해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낙관적 믿음은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엄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적응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어린 아동의 환상적

인 낙관적인 믿음이 개인의 긍정적인 강점으로 작용함을 제안할 수 있다.

낙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학령 전기 아동의 낙관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도 바로 아동에게서 보이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단순한 미숙함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응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사고를 어린 아동의 미숙한 발달에 의한 결핍이 아닌 '긍정적인 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측정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낙관성의 기원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은 관찰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자기 보고가 불가능한 어린 아동에 대한 낙관적 믿음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측했던 아동의 낙관성과 문제행동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행동 척도(K-CBCL) 이외에 4세 아동의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인 문제 행동 등 심리적 적응을 보기 위한 정교한 관찰, 혹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과 과거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낙관성'과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는 것

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 또한 미래 사건에 대한 긍정적 기대라는 점에서 낙관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이러한 환상적인 믿음은 좀더 정교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낙관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지, 적응적인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아보는 종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과도한 낙관주의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도한 낙관성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건강 위험과 관련된 위험 지각에서의 낙관적 편향이 가져오는 해로운 결과를 밝힌 연구도 있다(Weinstein, Lyons, Sandman과 Cuite, 1998). Kunda와 Klein (1990)은 낙관적 편향이 긍정적인 자기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는 달리 중도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낙관적 환상은 적응적일 수 있지만 단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현실성을 파괴하지 않을 때만 그렇다고 주장한다(Baumeister, 1988). 이와 마찬가지로 Seligman (1991)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성에 기반한 유연한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없다.

낙관성과 비관성이 초기 생애에서 발달된다고 가정되었으나 이러한 기대(expectation)가 아동기의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Kliewer & Lewis, 1995). 본 연구에서의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의 측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 낙관성의 기원과 발달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믿음을 심리적 결핍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강점으로 여기고 이것의 적응적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후 연구에서는 어린 아동의 낙관적 믿음에 대한 중단 연구를 통하여 어린 아동의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이 어떻게 발달되어가고, 이후 적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어린 아동기에 특징인 환상적인 낙관적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나 방법을 밝힐 수 있다면, 아동의 긍정적 강점을 지속시켜 성인기의 성공이나 행복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박경자 (1997). 낙관주의, 통제신념, 자기효능이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시험수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연구』 제1집, 31-53,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생활연구소.

박선미, 이현진, 김혜리, 정명숙, 양혜영, 변은희, 김경아, 김영숙 (2005). 한국 아동의 물리, 심리, 생물지식의 발달(II): 인지발달은 이론 발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49-74.

박철웅 (2002). 부부관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은상 (2004). 낙관주의 및 귀인방식과 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

성출판사.

허묘연, 오강섭, 이시형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 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9, 198-208.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Arnold, M. L., Pratt, M. W., & Hicks, C. (2004). Adolescents' representations of parents' voices in family stories: Value lessons, personal adjustment and identity development. In M. W. Pratt & B. H. Fiese (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s* (pp.163-186). Mahwah, NJ: Lawrence Erlbaum.

Barnum, D. D., Snyder, C. R., Rapoff, M. A., Mani, M. M., & Thompson, R. (1998). Hope and social support i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who have survived burn injuries and their matched controls. *Children's Health Care*, 27, 15-30.

Baumeister, R. F. (1988). The optimal margin of il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176-189.

Bjorklund, D., & Green, B. (1992). The adaptive nature of cognitive immaturity. *American Psychologist*, 47, 46-54.

Cosmides, L. A., & Tooby, J. (1989). Evolutionary psychology and the generation of culture: II. Case study: A computational theory of social exchange. *Ethology &*

- Sociobiology*, 10, 441-452.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weck, C. S., & Licht, B. (1980). Learned helplessness and intellectual achievement. In L. Garber & M. Seligman (Eds.). *Human Helplessness: Theory and application* (pp. 197-221). San Diego: Academic Press.
- Dweck, C. S., Hong, Y., & Chiu, C. (1993). Implicit theorie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and meaning of dispositional in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44-656.
- Ey, S., Hadley, W., Allen, D. N., Palmer, S., Klosky, J., Deptula, D., Thomas, J., & Cohen, R. (2005). A new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and pessimism: the youth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5), 548-558.
- Fischer, M., & Leitenberg, H. (1986). Optimism and Pessimism in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7(1), 241-248.
- Glasgow, K. L., Dornbusch, S. M., Troyer, L., Steinberg, L. & Ritter, P. L.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 507-529.
- Harter, S. (1974). Pleasure derived by children from cognitive challenge and mastery. *Child development*, 45, 661-669.
- Harter, S., & Zigler, E. (1974). The assessment of effectance motivation in normal and retard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0, 169-180.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 Hasan, N., & Power, T. G. (2002). Optimism and pessimism in children: A study of parenting correl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2), 185-191
- Hjelle, L. A., Busch, E. A., & Warren, J. E. (1996). Explanatory Style, Dispositional Optimism, and Report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7(4), 489-499.
- Jackson, L. M., Pratt, M. W., Hunsberger, B., & Pancer, S. M. (2005). Optimis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Authoritativeness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inding the Sunny Side of the Street. *Social Development*, 14(2), 273-304.
- Jaycox, L. H., Reiovitich, K. J., Gillham, J., & Seligman, M. E. P. (1994). Prevention of depressive symptoms in school children. *Behavioral Research Therapy*, 32, 801-816.
- Kazdin, A. E., French, N. H., Unis, A. S., Esveldt-Dawson, K., & Sherick, R. B. (1983).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among psychiatrically disturbed inpatient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 504-510.
- Kliewer, W., & Lewis, H. (1995). Family influences on coping proc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ickle cell diseas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0*, 511-525.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ional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 480-498.
- Lockhart, K. L., Chang, B., & Story, T. (2002). Young children's beliefs about the stability of traits: protective optimism? *Child Development, 73*(5), 1408-1430.
- McIntyre, J. G., & Dusek, J.B. (1995).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and styles of cop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499-509.
- Nolen-Hoeksema, S., Girgus, J., & Seligman, M. (1986). Learned helplessness i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on achievement and explanatory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35-442.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er, B., & Gladstone, G. L. (1996). Parent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es on adjustment in adulthood.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95-218). New York: Plenum.
- Peterson, C., & Seligman, M. E. (1984). Casual explanations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 Pettit, G. S., Harrist, A. W., Bates, J. E., & Dodge, K. A. (1991). Family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subsequent relations with peers at kindergart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83-420.
- Roberts, M. C., Brown, K. J., Johnson, R. J., & Reinke, J. (2002). Positive Psychology for Children: Development, Prevention, and Promotion. In C. R. Snyder & S. J.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663-67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s, R., & Beer, J. (2001). Positive illusions about the self: Short term benefits and long-term co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40-352.
- Rohner, R. P. (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ohner, R. P. (2004).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CONTROL: Child (Short Form)*. Retrieved from <http://vm.uconn.edu/~rohner>
- Rothbaum, F., & Weisz, J. (1989). *Child Psychopathology and the Quest for Control*. Newbury Park, CA: Sage.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063-107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2001). Optimism, pess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 C. Chang (Ed.), *Optimism and pessimism: Implication f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89-21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neider, W. (1991, April). *Performance prediction in young children: Effects of skill, metacognition, and wishfu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Schulman, P., Keith, D., & Seligman, M. (1991). Is optimism heritable? A study of twins. *Behavior Research Therapy, 31*, 569-574.
- Schuster, B., Ruble, D. N., & Weinert, F. E. (1998). Casual inferences and the positivity bias in children: The role of the covariation principle. *Child Development, 69*(6), 1577-1596.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Ware, L., Danovsky, M., Highberger, L., Rubinstein, H., & Stahl, K. J.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 1-19.
- Stern, G. (1990). The effects of childhood sexual abuse on adult attributional styl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1*, 1007.
- Stipek, D. J. (1984). Young children's performance expectations: Logical analysis of wishful thinking? In J. Nicholls (Ed.),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33-56). Greenwich, CT:JAI.
- Stipek, D. J., Lamb, M. E., & Zigler, E. F. (1981). OPTI: A Measure of Children's Optimis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 131-143.
- Valle, M. F., Huebner, E.S., & Suldo, S. M. (2006). An analysis of hope as a psychological strength.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393-406.
- Weinstein, N. D., Lyon, J. E., Sandman, P. M., & Cuite, C. L. (1998). Experimental evidence for stages of health behavior change: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applied to home radon testing.

Health Psychology, 17, 445-453.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 2101-2114.

Wenglert, L. Rosen, A. S. (2000). Measuring optimism-pessimism from beliefs about future ev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4), 717-728.

Woolley, J. D., Phelps, K. E., Davis, D. L., & Mandell, D. J. (1999). Where theories of mind meet magic: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beliefs about wishing. *Child Development, 70*, 571-587.

1차 원고 접수: 2007.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7. 11. 13

최종 게재 결정: 2007. 11. 14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Sun-Young Choi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developmental difference in UOB(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s) of the fu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OB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Study 1, 54 young children (age: $M=4,3$) and 47 older children (age: $M=7,7$) reported their UOB. The results revealed that young children had higher tendency of UOB. In Study 2, 54 young children in Study 1 and their mothers reported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an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PARQ).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 with high optimism showed higher positive perception of self. In the group with high UOB, parents with undifferentiated denial parenting style had less impact on the child's problem behaviors. This study examines UOB not as a psychological deficit but as a positive strength and proves that this trait brought psychological adjustment to children.

Key words: unrealistically optimistic belief, optimism, problem behavior, self-perception, trait belief